

돈보다 의리...김국영 “광주서 신기록 세우겠다”

상무 전역 타 실업팀 러브콜 뿌리치고 광주시청 복귀
아킬레스 통증에 부산서 재활훈련 다음달 대회 준비
“도쿄올림픽·9초대 목표 2~3년내 달성 위해 올인”

한국 간판 스프린터 김국영(29)이 광주로 돌아왔다. 2년여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복무하다 지난 16일 전역, ‘예비역’이 된 김국영은 다시 광주시청 소속으로 트랙에 선다. 자신의 목표인 도쿄올림픽과 9초대 기록을 광주 선수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김국영은 20일 “군 복무를 하면서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대회도 제대로 나서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면서 “군인 신분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전역하니 또 느낌이 다르다.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 현재로서는 뭐든 다 될 것 같다”고 전역 소감을 밝혔다.

김국영은 마지막 휴가를 받자마자 부산으로 향해 재활훈련에 돌입했다. 마침 광주시청 육상팀도 여수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시정팀이 광주에 복귀할 때 합류기로 하고 재활에

초점을 맞췄다.

김국영은 “심한 건 아니다. 입대할 때부터 아킬레스 쪽에 통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휴가를 받자마자 재활을 시작했다”며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님께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드렸다. 재활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팀에 복귀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감독님이 시간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국영은 10월 13일 김천에서 열리는 실업 대항대회, 10월 19일 예전에서 개막하는 전국대학·일반 육상경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23일 광주시정팀에 합류해 막바지 준비에 돌입한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에 대해 ‘돈보다는 의리’를 택했다며 엄지를 치켜세

웠다. 전역을 앞두고 다른 실업팀에서 큰 금액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국영이 이를 마다하고 광주시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국영은 “솔직히 ‘어?!’ 할 정도로 큰 금액을 제시한 팀도 있었다.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심재용)감독님께 바로 말씀드렸다”고 웃으면서 “하지만 광주에서 대우도 좋고, 돈을 따라갈 거였다면 진작 갔을 것”이라며 광주시청에 남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감독님이 2년간 정신 바짝 차리고 올 인하라고 하셨다”면서 “이제 나이도 생각해야 한다. 2~3년 이내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19세 때부터 육상 단거리 불모지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살아온 김국영의 목표는 9초대다.

그는 2010년 10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 31로 서말가마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기록 10초 34를 31년 만에 바꿔냈다. 준결승에서는 10초 23을 기록하며 한국기록을 다

시 수립했다.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10초 16, 2017년 6월 25일 KBS배에서 10초 13, 이틀 뒤인 6월 27일 코리아 오픈 국제육상경기 100m 결선에서는 10초 0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개인 다섯 번째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한국기록은 주춤했지만 김국영은 여전히 한국 1위 기록을 내고 있다. 지난해 10초 12, 올해 10초 29 기록은 모두 한국 최고 기록이다.

김국영은 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9초대와 함께 도쿄올림픽도 노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민간인으로서 준비할 시간을 얻었다. 도쿄올림픽 남자 100m 기준 기록은 10초 05. 김국영의 개인 최고이자, 한국기록을 0.02초 앞당겨야 기준 기록을 통과해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올 수 있다. 김국영은 올해 국내 대회를 뛰고 동계훈련을 거쳐 기준 기록 통과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국영은 “자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광주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최진화 기자



김국영



2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성남FC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 파이널A 진출을 확정된 광주FC 선수들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사상 첫 파이널A 진출

펠리페 결승골 두현석 추가골 성남 2-0 완파
강원 지고 서울 비기며 다득점 앞서 6위 확정

광주의 기적이 일어났다. K리그1 승격 팀 광주FC가 극적으로 파이널A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광주FC의 사상 첫 파이널A다.

광주는 2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성남FC와의 경기에서 펠리페의 시즌 11호골과 두현석의 시즌 첫 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6승 7무 9패가 돼 시즌 승점을 25로 만든 광주는 강원과 서울을 밀어내고 6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상위 6개 팀이 우승 다름을 벌이는 파이널A에 뛰어들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울산 현대, 전북 현대, 상주 상무, 포항 스틸러스, 대구FC가 파이널A 진출을 확정된 가운데 6위 한자리만 가려지지 않은 상태. 앞선 라운드까지 6위였던 강원FC는 수원 삼성과 홈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해 승점 24(6승 6무 10패)에 머물렀고, 7위였던 FC서울은 대구FC와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겨 승점 25(7승 4무 11패)가 됐으나 광주에 다득점(광주 28, 서울 19)에서 밀렸다.

극적인 스플릿A행이었다. 광주로서는 자력으로 스플릿A가 불가능했다. 일단 성남전을 이기고 강원과 서울이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광주는 성남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고, 강원의 패배와 서울의 무승부로 짜릿한 스

플릿A행 기쁨을 누렸다.

광주로서는 성남과의 개막전에서 0-2로 패한 빛도 되짚었다. 당시 1부리그 첫 경기가 주는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광주는 이날 제대로 설욕했다.

양팀 모두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하지만 승자는 윌리안, 펠리페, 원민석 삼각편대와 탄탄한 수비력을 합작한 광주였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윌리안의 슈팅이 성남 골망을 흔들었으나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며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그러자 해결사 펠리페가 나섰다.

펠리페가 전반 12분 왼발로 자신의 11호골을 만들어냈다. 펠리페가 후방에서 연결된 공을 발로 툭 차올려 상대 수비를 넘겼고 이후 다시 펠리페가 머리로 공을 박스 안으로 집어넣은 뒤, 깔끔한 왼발 슈팅으로 성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채 마친 광주는 후반 추가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후반 28분 터진 추가골의 주인공은 교체투입된 두현석이었다.

윌리안이 좌측에서 공을 잡고 빠르게 올라가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잠깐 흐름을 끊었다. 성남 수비가 윌리안과 펠리페에게 쏠린 상황, 뒤쪽에서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침투한 두현석이 윌리안의 패스를 받아 김영광 골키퍼

◇ 2020 K리그1 중간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울산	50	15	5	2	45	15	30
2	전북	48	15	3	4	38	19	19
3	포항	38	11	5	6	41	28	13
4	상주	38	11	5	6	29	27	2
5	대구	31	8	7	7	36	31	5
6	광주	25	6	7	9	28	32	-4
7	서울	25	7	4	11	19	37	-18
8	강원	24	6	6	10	27	36	-9
9	성남	22	5	7	10	19	26	-7
10	부산	21	4	9	9	21	31	-10
11	수원	21	5	6	11	20	26	-6
12	인천	18	4	6	12	15	30	-15

※ 순위는 승점-다득점-득실차-다승 순

의 킷을 넘기는 재치있는 로빙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두현석의 올 시즌 첫골이다.

궁지에 몰린 성남의 파상공격이 이어졌지만 광주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진섭 광주FC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일단 우리의 승리만 바라봤다. 6강을 확정해 굉장히 흥분된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으로’ 뛰어준 것이 극적인 파이널A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광주 팬들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감독은 “직관은 못하지만 집에서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6강 목표는 이뤘는데 상위권 가서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 광주만의 끈끈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고흥고 신록 역도 용상 한국신기록

163kg...남자 고교생 한국신 전병관 이후 처음
정광고 김경빈·나민주·김연호도 각각 3관왕

한국 역도 경량급 유망주 고흥고 신록(3년)이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한국 남자 역도에서 고교생이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것은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병관 이후 처음이다.

신록은 지난 17일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 용상에서 인상 127kg, 용상 163kg, 합계 290kg을 들어 우승했다.

또래 중에는 신록의 경쟁 상대가 없었다. 같은 체급 2위를 차지한 정현목(전남체고 3년)의 합계 기록은 242kg(인상 105kg, 용상 137kg)이었다.

신록의 인상, 용상, 합계 모두 학생기록과 한국주니어기록이었으며 특히 용상 기록은 한국신기록이었다. 매년 학생기록과 한국주니어기록을 수립하는 신록이지만 한국신기록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흥고 신록이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 용상에서 163kg을 들어올려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신록은 연습하면서 이미 한국신기록을 넘어섰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 기록 달성을 목표로 했고, 성공했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23kg을 들어 금메달을 확정된 신록은 2차 시기에서 126kg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 체급 학생기록은 지난해 신록이 세운 125kg이었다. 신록은 3차 시기에서 127kg에 도전했고, 성공하면서 학생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신기록은 용상 3차 시기에서 나왔다.

2차 시기에서 160kg에 성공하며 지난해 자신이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 학생역도경기대회에서 세운 학생기록과 주니어신기록(158kg)을 뛰어넘은 그는 3차 시기에서 163kg에 도전했다. 한국 남자 61kg급 용상 한국기록은 162kg이었다.

같은 체급 실업팀 선배들도 아직 실전에서

는 들지 못한 용상 163kg을 고교생인 신록이 성공했고, 한국신기록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신록은 합계에서 290kg을 기록해 학생기록과 한국주니어신기록(종전 283kg)도 갈아치웠다.

정광고 김경빈(3년)은 고등부 남자 89kg급 3관왕에 올랐다. 김경빈은 1차시기에서 135kg을 들어 기선제압에 성공했고 3차시기에서 140kg을 들어올려 1위를 확정지었다.

용상에서도 적수는 없었다. 1차시기에서 163kg에 성공한 김경빈은 2차에서 167kg, 3차에서 170kg을 기록하며 1인자임을 확인했다. 합계에서도 310kg으로 1위에 올랐다. 합계 2위에 16kg 앞서는 압도적인 1위였다.

정광고 나민주(2년)는 고등부 여자 67kg급 3관왕, 김연호(3년)는 고등부 여자 55kg급 3관왕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KIA 최원준 20경기 연속 안타

연속 출루는 ‘24’ ...KIA, 한화에 3-11 완패

KIA 타이거즈 최원준이 연속 안타 기록을 ‘20’으로 늘렸다.

최원준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5회말 유격수 내야안타를 기록하며 20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26일 잠실 두산전부터의 연속 안타다. 또 지난달 21일 광주 NC전부터 24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세웠다.

하지만 KIA는 이날 한화에 일격을 당하며 3-11로 패했다. 전날 브루크스의 완벽투를 앞세워 5위에 복귀했던 KIA는 상위권을 따라잡기 위

한 승리가 절실했으나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2회 초 실점한 KIA는 5회초 추가점수를 내주며 0-2로 뒤졌으나 5회말 2-2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선두타자 유민상이 우전 2루타로 출루한뒤 1사1.3루에서 김선빈의 적시타로 유민상이 홈을 밟았다. 이어 3루에 있던 최원준이 터커의 희생플라이로 득점하면서 2-2를 만들었다.

하지만 불펜이 허술했다.

7회초 4점을 내준 KIA는 8회초에도 2점을 더 허용했다. 8회말 터커의 솔로홈런으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최진화 기자